

‘파란색 하드코트’는 컬러조합과 TV중계의 산물

남녀 투어 대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하드코트. 전통의 잔디코트가 연두색에 가까운 잔디 색상, 유럽과 남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클레이코트가 앙투카의 붉은 갈색으로 대표된다면 하드코트는 과연 어떤 색상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US오픈과 호주오픈 등 대부분의 하드코트 색상은 파란색이다. 하드코트 색상이 어떻게 해서 파란색으로 정착되었는지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자.

전통에서 기인한 파란색 하드코트

테니스 코트의 원조는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잔디다.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태어난 잔디코트는 과거 귀족들이 즐겼던 테니스를 비롯해 폴로, 골프, 럭비 등의 놀이터였다. 투어 대회 초창기 역시 대부분 코트 표면이 잔디였으나 시간이 흘러 이제는 손에 꼽을 만큼 잔디코트 대회 숫자가 적다. 잔디코트의 태생 이후 테니스는 크고 작은 변화를 맞이했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코트의 다양화였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흙 바닥에서의 테니스는 기존 잔디코트에만 익숙했던 당시 귀족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으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흙의 특성과 슬라이딩이 가능한 재미 등이 더해지며 대중의 환영을 받았다.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난 테니스는 잔디코트와 클레이코트로 양분되는데 1950년대에 이르러 경제 논리에 발맞춰 또다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관리가 매우 어려운 잔디코트와 주기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클레이코트에 맞서 관리가 쉬운 코트를 찾게 되었고 코트 제작자들은 이런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게 된 것

이다. 바닥에 아스팔트와 아크릴 재질의 표면을 겹겹이 쌓아 만든 하드코트는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다면 하드코트의 최초 색상은 무엇이었을까? 모든 현상이 그렇듯이 변화라는 것 자체는 기존의 것로부터 탈피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런 논리라면 하드코트 역시 전혀 다른 색상으로 바뀌었을 법하다. 하지만 테니스는 실상 변화에 매우 인색한 종목이며 특히 역사와 전통을 고수하려는 종목이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실제로 하드코트는 탄생 직전 여러 색상이 고려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존의 팬들과 선수들에게 큰 거부감을 주지 않으며 안정할 방안으로 결정되었고 결국 잔디코트와 같은 녹색으로 시작되었다. 아무래도 변화를 원하지만 전통을 이어가고 싶은 연결고리는 색상에서 그 해답을 찾은 듯하다.

테니스의 대중화에 따른 콤비 색상의 탄생

녹색으로 시작된 하드코트는 미국과 호주 등 신대륙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이는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그들의 문화에 기반한다. 이는 1960~70년

대 강타했던 팝 문화와도 직결되는데 강렬하고 다양한 색상을 선호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이러한 현상은 테니스 코트에도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먼저, 팬들은 천편일률적인 녹색 코트에 식상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수많은 대회의 운영진들 역시 다른 대회와의 차별성에 중점을 두고 또 다른 변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테니스 코트를 보유한 대학교들과 지역 단체들은 학생과 시민의 의견을 받아 새로운 색상의 접목을 시도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테니스는 급진적인 변화를 꺼려하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급진적 변화는 전통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에도 이러한 인식 아래 일종의 타협점을 찾았는데 바로 기존의 녹색과 새로운 색상의 조합, 즉 콤비네이션 컬러에 착안한 것이다. 그리하여 탄생한 녹색과 빨간색의 콤비 색상. 코트 안쪽은 기존의 녹색을 유지하되 코트 바깥쪽은 빨간색으로 칠하여 코트의 입체적인 면을 더욱 부각시키고 보는 재미를 더욱 높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추구하였다.





WTA투어 타슈켄트오픈의 코트 색상은 하드코트 초창기인 코트 밖은 붉은색, 코트 안은 녹색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월 처음 열린 뉴욕오픈은 모던 느낌의 블랙 하드코트를 선보였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북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역 내 코트, 즉 주민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코트가 가장 먼저 이 변화를 받아들이며 거의 전국의 코트를 녹색+빨간색 조합으로 물들였고 이어 미국 내 대학과 미국과 캐나다의 각종 투어 대회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며 투어 대회의 다양화에 큰 몫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대회가 바로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로저스컵이다. 이 대회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녹색+빨간색 콤비네이션의 대표적인 대회였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US오픈 코트의 색상으로 탈바꿈해 녹색+빨간색의 콤비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 녹색에서 녹색+빨간색 콤비로 변경된 것이 매우 큰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심하면서도 귀여운 변화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색상은 기존 테니스 코트에서 볼 수 없었던 색깔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엔 잔디코트의 녹색과 클레이코트의 빨간색을 가져와 융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으니 당시 변화에 대한 그들의 고민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대세의 등장, 파란색

녹색 코트와 녹색+빨간색 콤비 코트로 이어져 오던 하드코트에 지난 2005년 큰바람이 불어 닥쳤다. 바로 하드코트의 대표 대회이자 그랜드슬램인 US오픈이 코트 색상을 바꾸기로 전격 선언한 것이다. US오픈 조직위원회는 ‘녹색+파

란색’ 콤비네이션을 발표하며 테니스계를 술렁이게 하였다. US오픈이 대회의 얼굴과도 같은 코트의 색상을 바꾼다니 이는 그동안 코트 색상의 변화가 지역 테니스 또는 일부 투어 대회에서만 행해지던 것이 전격적으로 그랜드슬램에도 적용되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다.

하지만 대중들의 반대도 있었는데, 이는 테니스의 전통, 나아가 테니스의 암묵적인 공식을 깨는 일종의 반항과도 같은 행위라고 여겼고 그랜드슬램의 변화는 곧 다른 대회의 변화를 이끄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당시 US오픈 코트 색상의 변화를 주도한 미국 테니스협회(이하 USTA)의 회장이었던 아를렌 칸타리안은 “새로운 색상은 많은 테스트를 거쳐 인정받았으며 선수들과 팬들이 공을 더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US오픈을 비롯한 모든 US오픈 시리즈에 적용되어 US오픈과 US오픈 시리즈 사이 확실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북미 하드코트 시즌의 브랜딩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코트 안쪽은 파란색, 코트 바깥쪽은 녹색으로 바꾼 USTA의 결정은 당시 매우 파격적이었는데 코트 안쪽을 녹색이 아닌 다른 색깔로 시도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이는 대회의 가장 큰 수입원인 TV 중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 TV 중계 시 파란색이 녹색보다 공을 더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 때문이다. USTA의 발표와 함께 당시 US오픈의 중계를 담당했

던 CBS 방송국의 회장 선 맥마누스는 “우리는 USTA의 결정을 존중하며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더욱 끌어오기 위한 US오픈의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한다”는 성명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반증한다.

파란색 코트에 숨겨진 비밀

US오픈과 US오픈 시리즈가 선택한 녹색+파란색 콤비는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이 콤비가 탄생하기까지 USTA는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밝은 녹색, 햇빛이 강렬히 비치는 날에는 형광색에 가까운 네온색으로까지 보일 수 있는 테니스 공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었다. 팔레트 색깔을 고려 시 노란색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정반대의 색깔, 즉 보색은 바로 파란색이다. 팔레트 위치상 정 반대편에 있는 노란색과 파란색은 보색의 역할을 하며 함께 놓일 시 180도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색상이 가장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파란색과 유사한 보라색도 노란색과 좋은 조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US오픈은 이 조합에 착안하여 파란색을 테니스 공이 움직이는 코트 안쪽에 접목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알려진 사실은 바로 해의 움직임에 따른 코트의 변색 또한 고려했다는 점이다. 일례로 해가 지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의 경우 해가 만들어내는 그림자로 인해 코트의 일부분만 노출이 되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노출이 더 심한

일부 코트의 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는 현상까지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US오픈은 조사 당시 코트 안쪽의 색깔을 밝은 빨간색으로 바꾸는 방법 또한 후보로서 막판까지 저울질했으나 이 경우 변색 시 파란색보다 TV 중계에 더 좋지 않음으로 판명되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햇빛으로 인한 변질 못지않게 TV 중계 시 어떠한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코트의 색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었는데 바로 아테네올림픽에서 과감하게 시도했던 짙은 파란색+밝은 파란색 조합의 경우 카메라 앵글이 낮아지거나 햇살이 매우 강렬할 시 밝은 파란색이 은색으로 보여 공 식별이 상당히 어려워 실 패 사례에 가까웠다는 분석 역시 US오픈의 이러한 결정에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개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진화

US오픈과 US오픈 시리즈가 새로운 색상으로 변화를 시도하자 다른 하드코트 투어 대회 역시 코트 색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동에서 열리는 대회는 노란색의 또 다른 보색 보라색을 선택하여 '녹색+보라색' 콤비네이션을 선보였고 WTA의 엘리트 트로피 대회

는 코트 안쪽을 핑크색으로 입히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스톡홀름 대회는 진한 회색과 파란색 콤비네이션을 선보이며 독특한 청량감을 나타냈고 뉴욕오픈은 코트 전체를 검정색에 가까운 차콜 컬러로 덮으며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 속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바로 또 다른 하드코트의 그랜드슬램인 호주오픈과 테니스 코트의 컬러에 있어서 최강자로 불리는 월드 팀 테니스(이하 WTT)가 그 주인공이다. 호주오픈은 US오픈이 코트 색상을 바꾼 후 3년이 지난 2008년 변화에 동참하였는데 호주오픈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코트 전체를 파란색으로 물들이는 초강수를 들고나와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을 놀라게 하였다. 다만, 코트 안쪽과 바깥쪽을 살짝 다른 채도의 파란색 조합으로 만들어 일명 '호주오픈 블루'를 만들어 내었다. 호주오픈의 파란색은 어찌 보면 투명한 청정구역의 바다색과 비슷한데 이는 '해피 슬램(Happy Slam)'이라 불리는 호주오픈의 밝은 분위기와 매우 잘 어울리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고 호주테니스 협회는 미국이 그러했듯이 기타 호주 대회의 코트 색상 또한 유사하게 바꾸며 호주 테니스 시

존의 통일성 또한 강조하였다.

WTT는 코트 색상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트렌드 세터인데 이벤트성 느낌이 강한 가벼운 분위기와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며 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은 그들의 염원을 담아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을 코트에 쏟아부었다. 서비스 라인을 기점으로 분홍색, 네온, 오렌지, 보라 등 네 가지 컬러의 조합으로 코트를 화려하게 꾸미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보는 재미를 배가시킨 것이다. 너무나 화려한 색상 덕분에 공이 빠르게 움직이면 공을 제대로 보기 힘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개성 있는 코트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테니스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 같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실제 투어 대회에도 이런 코트가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지만 지금까지 변화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테니스 코트에 또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지 내심 기대해 본다. 🎾

글_ 전채향 객원기자

사진_ 테니스코리아, GettyimagesKorea



▶1974년 미국에서 시작된 WTT 코트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알록달록한 색으로 꾸며 색다른 느낌을 선사한다 ▼코트 안쪽과 바깥쪽을 다른 채도의 파란색으로 입힌 호주오픈 코트

